

인도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 특성 분석을 통한 한·인도 협력방안

이 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위원
wlee@kiep.go.kr

배찬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
무역투자정책팀장
ckbae@kiep.go.kr

이정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leejm@kiep.go.k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한동안 지속됐던 경기침체 이후 세계경제가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중국의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러한 견고한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¹⁾**
 - 이러한 고성장기조에 따라 2016년 인도는 명목 GDP 기준 이탈리아를 앞서며 G6 국가로 자리매김함.
 - 구매력 평가기준(PPP)으로는 이미 일본을 추월하여 미국과 중국에 이어 글로벌 3대 경제대국임.
 - 인도의 고성장세는 경기순환 차원의 일시적 현상이 아닌 ‘모디노믹스(Modinomics)’로 상징되는 모디정부의 친시장·고성장 경제개발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과정임.
- **특히 ‘Make in India’로 잘 알려진 인도의 제조업 육성정책은 인도가 중국에 버금가는 글로벌 제조업의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함에 따라 전 세계가 인도를 주목하고 있음.**
 - 2017년 7월 1일부로 인도의 3대 개혁 법안(노동법, 토지수용법, GST 법) 중 하나인 GST (Goods and Service Tax, 상품서비스세) 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도경제의 패러다임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음.
 -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대인도 경제협력과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방안에 대한 심층적이고 연속성 있는 연구가 필요
 - 최근 중국의 생산기지로서의 가치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등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따라 대안 중 하나인 인도 제조업에 대해 보다 세부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 자세하고 정교한 정보제공이 요구되고 있음.
- **본 연구는 기업수준의 자료를 이용해 인도 제조업을 24개 소분류 및 137개 세분류로 구분하여 세부 업종별 구조와 특성을 연구함.**
 - 우선 세부 업종별 분석에 앞서 인도 제조업의 현황, 제도, 정책을 조사 및 정리함.
 - 인도 제조업 세부 업종별 특성을 시장지배력, 성과, 연구개발, 글로벌화, 생산성으로 구분하고 산업집중도, 허핀달·허쉬만지수, 러너지수, 매출액, 총자산, 영업이익률, 연구개발비, 수출, 수입, 노동생산성을 산출함.
 - 인도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확률적 프런티어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하고, 이에

1) 2017년 인도 경제성장률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이는 인도정부의 경제개혁조치로 인한 일시적 현상임.

대한 결정요인을 세부 업종과 기업특성별로 비교분석

- 또한 인도 제조기업을 인도 국내기업, 해외기업(한국기업 제외), 한국기업으로 나누어 이들의 특성을 비교분석함.

●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대인도 협력과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우리 기업에 대인도 진출 유망산업을 선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
 - 제조업 세부 업종별로 인도가 현지 진출을 통한 생산이 유리한지 아니면 수출시장으로서의 가치가 두드러진지에 대한 판단을 위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기를 희망
-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가 한·인도 제조업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수립 및 유망분야 발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인도 제조업 현황 및 환경

● 인도 제조업의 전체 산업대비 비중, 노동생산성은 주요 신흥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인도 제조업은 GDP 대비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슷한 수준의 인구규모인 중국 및 인도네시아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거의 같았으나 농업부문의 비중에서 인도가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보다 높았음.
- 인도 제조업의 노동생산성도 주요 신흥국들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더욱이 인도 제조업은 노동풍부국임에도 불구하고 자본기술 고숙련노동집약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적임.
 - 과거 사회주의식 경제시스템의 영향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고착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

● 그러나 전체 수출대비 제조업 상품 비중이 70% 이상으로 한국과 중국(90% 이상)을 제외하면 주요 신흥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RCA 기준 수출경쟁력이 높은 품목의 수가 중국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국가가 바로 인도임.

● 최근 FDI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해외기업의 대인도 진출 확대는 인도 국내 제조기업의 생산성과 임금 및 수출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인도정부의 유인책도 다방면으로 진행 중임.

- 특히 2014년 모디정부 출범 이후 'Make in India'를 필두로 한 제조업 관련 정책과 이를 위한 FDI 유인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
 - 인도정부는 인도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장벽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특히 제조업 성장의 본질적인 걸림돌인 인프라 병목현상의 해결을 위해 다각적이고 전폭적인 투자를 진행 중임.
 - 이외에도 중앙정부는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주(州) 정부 차원의 각종 유인책도 제공하고 있음.

2) 인도 제조업의 세부 업종별 분석

- 첫째, 소수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
 - 전체 제조업의 상위 10대, 50대, 100대 기업의 비중을 나타내는 일반집중도에 따르면 2009년에 비해 상위 10대 일반집중도는 하락했으나 50대와 100대의 일반집중도는 증가했는데, 이는 소수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다소 감소했음을 의미함.
 - 높은 수준의 러너지수를 기록한 세부 업종의 비중이 감소했는데, 이 또한 세부 산업에서 소수기업의 시장지배력이 낮아진 것을 보여줌.
 - 한편 세부 업종별 산업집중도와 HHI에 따르면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높은 초기 투자비용을 유발하거나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산업집중도가 높게 나타남.
 - 특히 분석기간 '담배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의 집중도가 대폭 상승함.
- 둘째, 기업의 성과가 향상되고 있음.
 - 분석기간인 2009~15년 기간 세부 업종별 매출액, 총자산, 매출액 성장률이 상승세를 보임.
 - 매출액과 총자산의 규모는 석유정제와 1차 철강 제조업과 같은 중화학공업이 크게 나타났으며, 성장속도는 '담배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등이 높은 수준을 보임.
- 셋째, 인도 제조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증가세를 보임.
 - 세부 업종 중 연구개발을 가장 활발히 진행하는 업종은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으로 왜 인도가 제약산업 강국인지를 보여줌.
 - '항공기, 우주선 및 관련 장치 제조업'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연구개발비 비중을 보였는데, 왜 인도가 개도국임에도 인공위성 보유국임을 나타냄.

- 넷째, 제조업의 수출과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며 최근 글로벌화 추세를 따르고 있음.
 - 그러나 세분류(4단위)별 2009년과 2015년의 개방도 상위 20개 품목 중 개방도가 하락한 업종이 9개, 상승한 업종이 3개였는데 이러한 개방도의 감소세는 직간접적으로 'Make in India' 정책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세부 업종별 노동생산성은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지수 및 변수에 비해 변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 업종 중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생산성을 나타내는 산업은 '담배 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등임.
- 인도 제조업의 세부 업종에 대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본 결과, 인도 제조업 전망은 긍정적으로 판단됨.

3) 인도 국내기업, 해외기업, 한국기업 특성 비교

- 한국기업, 인도기업, 해외기업(한국기업 제외)에 대한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특성을 확인함.
 - 인도기업은 모든 특성에 대한 변동성이 가장 큼.
 - 이는 인도기업의 경우 기업간 차이가 한국기업이나 해외기업보다 월등히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조업분야에서 90% 이상을 인도 국내기업이 차지하므로 당연한 결과임.
 - 해외기업의 러너지수와 영업이익률이 월등히 높음.
 - 해외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의 수익률을 올리는 것을 알 수 있음.
 - 한국기업의 매출과 총자산이 높은 수준이며, 상대적으로 수출과 수입 비중 및 개방도가 높게 나타남.
 - 인도 제조업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상대적으로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임을 알 수 있음.
 - GVC를 통해 인도 제조업의 수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암시함.

4) 인도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변화와 결정요인 분석

- CMIE가 제공하는 2009~15년 Prowess 기업데이터를 사용하여 인도 제조업의 생산함수를 추정된 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기술진보, 기술적 효율성, 규모효과에 따른 변화로 분해해, 이를 산업 중분류(Division)에 따른 업종별, 소유구조에 따른 기업특성별로 비교분석함.
 - 또한 생산성 변화와 구성요인의 기업간 차이를 산업 세분류(Class) 수준에서 산업 내 격차와 산업간 격차로 구분해 분석함.

- 분석기간(2009~15년) 인도 제조업 전체에서 총요소생산성은 1% 가량 증가하는데, 주로 기술적 효율성과 기술진보에 의해 달성된 것으로 분석됨.
 - 기술진보는 저렴한 노동력의 사용을 확대하는 반면 자본투입을 줄이는 역할을 함.
 - 한편 기업들이 주어진 기술수준에서 최적의 생산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기술적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기술적 비효율성은 전체적으로는 완화되는 추세이나 최근 들어 다시 소폭 악화되고 있음.
 - 그러나 규모의 경제에 의한 효과는 생산성을 오히려 악화시킨 요인으로 보임.
- 업종별로는 상당수의 업종에서 생산성 증가요인으로서 기술진보의 주도적 역할이 관측됨.
 - 한편 매출액 기준 산업규모가 큰 업종에서 기술적 효율성이 생산성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부각됨에 따라 전체 제조업 수준의 생산성 추이는 기술적 효율성의 변화에 의해 크게 좌우됨.
- 기업특성별 분석결과에서도 기술진보의 주도적 역할이 나타남.
 - 민간기업, 특히 외국기업에서는 기술진보가 생산성 향상의 주원천인 것과는 달리 국내기업 중 공기업의 생산성은 기술적 효율성이 큰 영향을 미침.
 - 한편 외국기업의 경우 분석기간 동안 다수 업종에서 기술적 효율성의 악화로 인해 총요소생산성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서의 기업간 격차는 주로 산업 내 격차에 의해 설명됨.
 - 이러한 가운데 기술진보의 경우 산업간 격차의 비중이 다른 요인에서보다 훨씬 크고,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기업특성별로 보면 다른 국내기업이나 민간기업과 비교할 때 외국기업과 공기업의 경우 산업간 격차에 의한 기업간 생산성 차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3. 정책 제언

1) 세부 업종별 한국기업의 대응방안

- ① 세부 업종별 우리 기업의 유의사항
- 진출업종의 시장지배력을 고려
 - 1990년 초를 기점으로 2000년대를 거치면서 지속적인 개혁개방이 단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상당수 세부 업종에서는 소수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인도가 개혁개방을 단행한 첫 10년간 제조업의 각 산업별 시장지배력은 낮아졌으나 2000년대 이후 증가세를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이는 기존 기업들이 인도정부의 관리감독이 느슨해진 틈을 이용해 진입저지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보임.
- 한편 독점적 지배력이 높은 산업에서 해외기업들에 대한 장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도 정부 차원의 보이지 않는 국내기업 보호정책이 시행되고 있을 개연성도 있어, 우리 기업의 대인도 신규 제조업 업종 진출 시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
- 특히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는 'Make in India' 정책은 보이지 않는 국내기업 보호로 이어질 소지가 있음.

● 중앙정부 및 주정부의 세부 산업별 정책 검토

- 인도는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정책이 혼재되어 있어 주정부의 세부 산업별 정책이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에 영향을 줄 여지도 충분하기에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 또한 선행되어야 함.

● 글로벌 경쟁력 보유품목 검토

- 인도 제조업은 주요 신흥국(한국 포함)과 비교해볼 때 HS 2단위 기준 비교우위를 갖춘 품목이 31개로 중국의 40개 다음이며 우리나라보다도 많은 경쟁품목을 보유하고 있음.
 -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31개 품목 중 주요 경쟁국에 비해 압도적인 품목은 HS 29(유기화합물), 30(의료용품), 32(염료·안료, 페인트·잉크), 52(면·면사·면직물), 53(마류의 사와 직물), 57(양탄자), 58(특수직물), 63(기타 섬유제품, 냅마), 71(귀석·반귀석, 귀금속)의 9개 품목으로 이 품목 중 30, 32, 52, 53, 57, 63은 중국과 한국보다도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 기업의 수익성 관리

- 인도 제조업의 성과 및 성장성은 그 어느 나라보다 높지만 영업이익률은 변동성 또한 높아 세심한 수익성 관리가 필요함.

● 진출업종에 속한 주요 공기업과의 경쟁 및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 개발

- 인도 제조업의 소유구조별 업종을 비교해보면 외국기업의 주요 업종이 공기업의 업종과 상당 부분 겹침.
- 이러한 가운데 외국기업이 기술적 효율성 악화로 고전하는 데 반해 공기업은 기술적 효율성의 개선을 보이고 있음.
 - 기술적 효율성이 기업활동 및 시장메커니즘과 관련한 제도와 규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도시장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특히 공기업과의 경쟁이나 협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음.

② 한·인도 협력을 위한 우리 중소기업 유망업종

●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한 우리 중소기업의 대인도 제조업 진출 유망 업종은 [표 1]과 같음.

표 1. 한국 중소기업의 대인도 제조업 진출 유망업종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글로벌 경쟁력(현시비교우위지수 1 이상) - 낮은 수준의 시장지배력(CR3 30% 이하, HHI 500 이하) - 적은 규모의 매출과 총자산 - 높은 영업이익률(4% 이상) - 높은 매출액대비 수출 비중(20% 이상), 수입 비중(20% 이상), 개방도(40% 이상) - 높은 수준의 노동생산성 및 총요소생산성
선정 세부업종 (중분류 2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4(1차 금속 제조업)

주: 이는 주관적인 선정기준일 수 있으나 경쟁력 관련 세부 업종의 특성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것임.

● 한편 이외에도 기술력을 구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세부 업종 내 틈새시장(Niche Market) 진출이 유망함.

- 인도는 산업 자체가 낙후된 세부 업종이 많고 인도 국내기업과 한국기업의 기술격차가 큼.
- 업종 내 저가 및 초저가 품목에 대한 가격경쟁력은 인도제품에 밀릴 수 있지만 인도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의 경우에는 성공가능성이 높음.
 - 예컨대 통신케이블에서 인도는 220KV까지의 제품은 만들 수 있으나 그 이상의 제품은 생산기술이 없으므로, 한국기업이 220~500KV까지의 제품을 생산한다면 충분한 사업성이 있을 것²⁾

③ 한·인도 제조업 분야 전략적 협력업종

● 본 연구결과와 한국과 인도의 제조업 상황을 고려해 3개의 대인도 협력 전략산업(제약산업, 선박제조업, 우주선 및 관련 장치 제조업)을 선정함.

● 제약산업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창의력, 인도의 선진국 수준의 제조기반을 융합할 수 있는 기업간 협력이 요구됨.

- 제약산업은 상대적으로 시장지배력이 높지 않으며 수익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현시비교우위지수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음.
- 제약산업은 인도 제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제약산업의 매출액대비 수출 비중도 40% 이상으로 높은 수준임.

2) 인도 현지 출장(2017. 7. 25)을 통해 습득한 정보임.

- 우리의 제약사들은 제네릭 의약품 중심에서 최근 한국형 신약을 개발하면서 선진국형 기업으로 발돋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선진국 기준 제조시설 기반이 부족하고, 인도는 선진국 기준 제조공장이 많으나, 신약부문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제약분야에서 양국 간 상생의 협력이 요구됨.

● **선박 건조를 포함한 조선분야의 전략적 대인도 협력이 필요함.**

- 인도 정부는 이미 2015년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LNG 운반선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을 요청한 바가 있음.
 - 당시의 안을 살펴보면 인도가 LNG 운반선을 발주하는 대신 일부를 인도에서 생산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우리 기업 및 정부는 기술유출문제로 현지에서의 건조에 난색을 표명했음.
 - 이후 불어닥친 조선업 불황의 여파를 생각하면 정부 차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음.
- 다소 늦기는 하였지만 지금이라도 조선분야에서의 전략적인 대인도 협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현시비교우위지수를 통해 인도 선박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우리의 항공우주산업을 효율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이 분야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인도 협력 강화를 제언함.**

- 인도의 우주과학기술은 표준화가 잘 돼 있고 우수한 인력과 저렴한 운영비용으로 경제성과 안정성을 이미 인정받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경쟁력은 본 연구의 결과 이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음.
- 우리 정부는 항공우주 R&D 센터 설립 등 인도의 우수한 인력, 기술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15년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우주과학과 그 응용분야, 위성 발사’에 대한 기술협력에 대해 합의했으며 이를 위한 초기 단계로 우리의 항공우주연구원(KARI)과 인도우주연구기구(ISRO) 간의 정례적 실무회의 개최를 합의했음.

2) 한·인도 제조업 협력 관련 한국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

● **중소기업, 특히 충분한 기술력을 갖추었으나 인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기업들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이 절실함.**

- 지금까지 우리 기업의 대인도 제조업 분야 진출은 주로 대기업 위주로 인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우리 기업은 다국적기업으로 이들의 우리 정부에 대한 의존도는 높지 않은 만큼 중소기업 중심의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함.
- 구체적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음.

- ① 세부 산업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등 세부 업종별 지원을 통해 보다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
 -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정부의 세부 업종별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 ② 부처간 혼선을 피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지원 관할 부서의 일원화
 - 중소기업의 지원 제도 및 체계가 복잡해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음.
- ③ 우리 중소기업의 초기 인도 진출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센터 확장
 - 현재 코트라외 인큐베이터센터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 기업인들의 견해이지만 규모 면에서 아직까지 우리 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④ 한국 중소기업 전용공단 조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 현재 조성된 한국기업 전용공단은 상대적으로 인도 주요 시장과는 거리가 있어 우리 중소기업의 영업에 제약이 있음.

● **우리 정부는 인도 정부 및 기업에 한국기업의 대인도 진출이 인도 제조업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수출과 수입 비중 및 개방도가 높은 것은 한국기업의 대인도 진출이 글로벌 가치사슬 편승으로 인도 제조업의 수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암시함.
 - 뿐만 아니라 이는 한국 내 중간재 수출로 한국 모기업 또는 관련 업체의 성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보여줌.
- 따라서 한국기업의 대인도 제조업 진출이 증가하면 인도 제조업이 내수 중심에서 수출 주도형 분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 또한 한국기업의 높은 생산성은 한국기업의 인도 진출 증가에 따른 기술파급효과로 이어져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인도 국내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 이는 아직까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인해 생산성이 낮은 인도 국내기업에 매우 효율적인 생산성 향상의 대안이므로, 인도 정부 및 기업 모두 한국기업의 대인도 진출에 대한 전향적인 발상의 전환이 요구됨.
 - 인도정부에 이러한 점을 부각시킨다면,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 시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

● 대인도 협력의 가속화가 요구됨.

- 인도정부가 해외기업에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모디정부 1기 내에 인도시장 선점을 위한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현재 인도경제의 성장속도와 중국과 일본기업의 인도 진출 추이를 고려하면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인도정부의 해외기업에 대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음.
- 재집권이 유력시되는 모디 총리의 집권 2기가 시작되는 2019년 상반기 전까지 우리 제조기업의 명확한 지원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한동안 미국, 중국, EU와 더불어 글로벌 4대 시장으로 약진할 인도시장에서의 우리 기업의 입지는 좁아질 것임. **KIEP**